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핵무력의 일대 시위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주제 106(2017)년 7월 28일 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현지에서 나오시여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리병철동지, 김락경동지, 김정식동지, 장창하동지, 전일호동지, 유진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안정성이 유지되고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정상동작하였다는것을 확증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대성공을 이룩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로켓연구부,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감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대륙간탄도로켓체계의 믿음성이 재확증되고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켓을

비밀한 군사적예지와 탐대한 배짱, 명철한 전략으로 세인의 예상을 뒤엎으며 언제나 련전련승의 기적과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로켓연구부문에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의 최대사거리를 모의한 시험발사를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여 로켓체제전반에 대한 믿음성을 다시한번 확증할데 대한 전무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안고 명도자와 사상도 숭경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그 어떤 요새도 단숨에 점령해나가는 우리 당의 열혈충신들인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핵무력의 막강한 위력을 세계

앞에 찻찻이 보여줄 신심드높이 결사전을 벌려 대륙간탄도로켓 2차 시험발사준비를 앞당겨 끝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준비기간 매일매일 그 정형틀 보고받으시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발사 당일 밤에는 로켓시험발사장에 직접 나오시여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이번 시험발사는 대형중방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의 최대사거리를 비롯한 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특성들을 최종확증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발사명령을 내리시자 영웅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세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이 대지를 박차고 장쾌한 불줄기로 어둠의 장막을 밀어내며 우주만리로 단숨에 솟구쳐올랐다. 우리 나라 서북부지대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은 최대정점고도 3,724.9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98km를 47분 12초간 비행하여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착륙되였다. 이번 시험발사는 최대사거리를 모의하여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진행하였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륙간탄도로켓 2차 시험발사를 통하여 지난해 1차 시험발사에서 확증되었던 발사대리탈특성, 계단분리특성, 구조체제특성 등이 재확증되었으며 능동구간에서 최대사거리보장을 위하여 늘어남 발동기들의 작업특성들과 개선된 유도 및 안정화체제의 정확성과 믿음성이 확증되였다. 또한 전투부분리후 중간구간에서 중방전투부의 자세조종특성을 재확증하고 실지 최대사거리비행조건보다 더 가혹한 고각발사체제에서의 재돌입환경에서도 전투부의 유도 및 자세조종이 정확히 진행되었으며 수천℃의 고온조건에서도 전투부의 구조적

기습발사할수 있는 능력이 과시되었으며 미본토전역이 우리의 사정권안에 있다는것이 뚜렷이 입증되였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우리가 굳이 대륙간탄도로켓의 최대사거리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것은 최근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팔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물 보내기 위해서이라고 하시면서 이 정도면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미국이라는 침략국가도 무사할수 없으리라는것을 제대로 이해하였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3 번 으 로 계 속

